깊은 계곡 맑은 물과 기암괴석에 오색단풍 물들다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순창 강천산 단풍길



화려한 단청을 한 강천사일주문.


신선봉에서 내려다 본 강천사 전경. 고즈넉한 산사에도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만추의 서정이 깃들어 있다.


강천사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50m, 길이 75m의 구름다리는 아찔한 고도감과 최고의 조망을 선사한다.


40m 높이의 병풍바위에서 물이 비단처럼 떨어져 병풍폭포가 됐다. 폭포수는 비단 결같이 부드럽게 휘날리며 붉게 물든 단풍에 축복을 내려준다.


구장군폭포는 구장군바위에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올려 폭포를 만들었다.

순창 강천산 근처에 도착하자 곱게 물든 단풍이 집단으로 마중을 나왔다. 강천산 군립공원 매표소를 통과하니 단풍나무들이 도열해 길안내를 해준다.

강천산 단풍길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강천사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티없이 맑은 계곡은 오색단풍으로 채색됐다. 계곡물은 완만하게 흐르다가도 바위를 만나면 작은 폭포를 만들어 하얀 물구슬을 만들어낸다.

계곡을 따라 한 구비 돌아가자 깎아지른 기암절벽이 나타난다. 병풍처럼 펼쳐졌다고 해 병풍바위라고 불리며, 볼록한 등에 목을 쭉 빼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거북이바위라고도 부른다. 40m 높이의 병풍바위에서 물이 비단처럼 떨어져 병풍폭포가 됐다. 병풍폭포는 병풍바위로 물을 끌어올려 떨어뜨린 인공폭포다. 폭포수는 비단결같이 부드럽게 휘날리며 붉게 물든 단풍에 축복을 내려준다.

병풍폭포를 지나면서부터는 잘 다져진 흙길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산책로다. 황토와 모래로 조성된 맨발산책로는 거리 2.5㎞, 폭 3m에 이른다.

맨발산책로는 병풍폭포에서 시작해 강천사를 지나 구장군폭포까지 이어진다. 맨발산책로와 별도로 숲속으로 데크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맨발산책로를 걸으며 단풍의 우아한 정취에 빠져든다.

밝은 가을햇살을 받은 단풍잎은 화사하고 따스하다. 가을 단풍잎은 봄철 연잎처럼 산뜻하지도, 여름철 녹음처럼 활력 넘치지도 않지만 화사하고 우아하다. 나도 저 아름답게 물든 단풍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잘 물든 단풍은 화려하게 핀 꽃 못지 않다.

강천사계곡은 경사가 완만하고 부드러운 흙길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다.

계곡이 완만해 폭포다운 폭포는 없지만 1m 정도 높이의 작은 폭포들은 꽤 많다. 작은 폭포를 울긋불긋 뒤덮은 단풍이 강천산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

예쁘게 물든 단풍은 빨강색부터 노랑, 다홍, 갈색 등 색상도 다양하다. 오색찬란한 단풍 아래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엊그제까지도 나뭇가지에 매달려 화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낙엽 되어 땅에 떨어졌다. 생사(生死)는 순간이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강천사계곡길은 단풍터널을 이뤘다. 단풍터널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미 단풍으로 물들었다. 티 없이 맑은 계곡물도 단풍들었음은 물론이다. 나무도, 계곡물도, 사람도 붉게 물들었으니 삼홍(三紅)이다.

단풍나무 아래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계곡을 바라본다.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물위에 휘날리던 낙엽이 사뿐히 내려앉는다. 잔잔한 물위에 단풍이 예쁘게 수채화를 그려놓았다.

징검다리 건너에 부도밭이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오색으로 물든 단풍나무들이 맑은 물위로 가지를 내민다. 가장 행복한 가을을 즐기고 있는 징검다리다. 징검다리를 건너니 부도밭 앞쪽 물가에 수많은 돌탑들이 서있다. 물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계곡물과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올린 돌탑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부도밭 주변 땅바닥에도 단풍이 물들어있다. 낙엽은 나뭇가지에 매달려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나를 쓸쓸하게 한다. 부도밭으로 다가서니 여러 기의 부도가 계곡을 바라보고 있다. 입적한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들은 단풍과 함께 선정삼매에 들었다.

부도밭 앞을 지나니 몇 십 그루의 메타세콰이어나무가 단풍나무를 대신해 가로수를 이뤘다. 메타세콰이어나무에도 서서히 단풍이 물들고 있다. 이끼 낀 바위와 흐르는 계곡물은 낙엽이 내려앉으면 반갑게 맞아주고, 바람이나 물살이 낙엽을 데리고 가면 미련 없이 떠나보낸다. 오고 가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끼 낀 바위를 넘어 하얀 포말을 만들어낸 작은 폭포는 영롱하게 빛나는 단풍잎과 어울려 선경이 됐다.

단풍터널은 강천사 일주문으로 이어진다. 화려한 단청을 한 강천사일주문도 주변 단풍들과 아울려 만추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네모진 강천사 일주문을 통해 바라본 풍경 또한 아름다운 수채화 한 폭이다. 불타오르는 단풍을 따라 걷다보니 2층 누각 안양루가 맞이한다. 안양루에 올라서자 대웅전, 보광전, 관음전, 요사채 같은 당우들이 계곡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있다. 강천사는 가파르게 솟아있는 신선봉이 바라보이는 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절 마당에는 단풍명소답게 몇 그루의 커다란 단풍나무가 당우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어 붉은 단풍과 조화를 이뤘다.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스님의 목탁소리에도 만추의 서정이 깃들어있다. 단풍나무 아래에 앉아 스님의 염불소리에 귀 기울인다. 속세에서 가져온 번뇌가 사라져간다.

강천사 앞 계곡가에는 삼인대가 있다. 삼인대는 1506년(연산군 12) 중종반정 이후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한 곳이다. 삼인대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인데, 비각 안에는 높이 157㎝, 폭 80㎝, 두께 23㎝의 삼인대비(三印臺碑)가 세워져 있다.

삼인대로 건너가는 다리 근처에 모과나무 거목 한 그루가 우뚝 서있다. 이 모과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20m에 이른다. 회갈색 수피가 조각조각 벗겨져 있는 모과나무는 수백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줄기가 뒤틀리고 굴곡지면서도 근엄하게 자기자리를 지키고 서있다.

삼인대 앞에서 계곡을 거슬러 한 굽이 돌아가자 기암절벽이 나타나고, 기암절벽 위쪽에 구름다리가 설치돼있다.

강천사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50m, 길이 75m의 구름다리는 아찔한 고도감과 최고의 조망을 선사한다. 주황색 구름다리는 주변의 단풍과 황홀하게 어울렸다. 우아하게 물든 단풍이 구장군폭포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꾸만 붙잡는다. 단풍으로 붉게 물든 현수교에 올라서자 기암절벽을 이룬 비경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 깎아지른 바위가 구장군바위다. 구장군바위에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올려 폭포를 만들었으니 구장군폭포다. 120m 높이의 바위에서 절벽을 타고 두 줄기 폭포수가 굽이치면서 힘차게 떨어지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강천산은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있어 '호남의 소금강'으로도 불린다. 계곡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오색단풍이 여전히 아름답다. 단풍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후 미련없이 낙엽으로 돌아간다. 단풍이 아름다운 건 집착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는데 있는지도 모른다.

〈장갑수·여행작가〉


부도밭 앞쪽 물가에 수많은 돌탑. 맑은 계곡물과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올린 돌탑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작은 폭포를 울긋불긋 뒤덮은 단풍이 강천산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

※여행쪽거

▲강천산은 내장산이나 백양사 못지않은 단풍명소다.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 강천사계곡은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다.

※코스 :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병풍폭포→강천사→구장군폭포→강천사→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

※거리, 소요시간 : 6.2㎞, 2시간 소요

※출발지 내비게이션 주소 :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02-1)